Economy p/5

시민단체 '교통비인상' 반발

metro

메트로 2015년 4월 20일 월요일 제3200호

Entertainment p/17

'어벤져스2' 추억을 내한

중고차도 우리가 먹자

현대글로비스, 직접 매입도 시작… 法 피해 경매로 판매

"청년백수 마지막 출구까지 침범"… 중소딜러들 질식

김세영 "난 이글샷 먹었다"

"위헌 車벽 쌓고 최루액 먹였습니다"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영국 총선 영국은 5월 7일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선거전이 한창이다. 보수당 당수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사진 위)는 18일(현지시간) 그레이브센드에서 시크 교인들의 축제에 참석했다. 같은 날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아래)는 영국 북부 랭스셔에서 이민 문제에 대해 연설했다. 보수당은 이번 총선에서 적자 감축을 포함, 세금 인하,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위한 지원, 연금생활자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노동당의 공약은 이민자 고용을 통한 영국인 노동자의 감원 불법화, 국민건강보험 종사자 등을 위한 예산 증액, 대학등록금 감액, 2017년까지 에너지 요금 동결 등이다. 이번 총선에서 양당은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전망이어서 군소정당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日 '전쟁금지' 헌법전문부터 손대나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전쟁을 금지한 일본 헌법 전문에 대한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18일 오키나와에서 열린 강연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도 헌법 전문에 쓰면 좋지 않겠느냐"며 "국가로서 요구하는 보수를 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란 일본의 자위대가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군사력을 강화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표면적으로는 세계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도입, 자위대 해외 파견, 군비 증강 등을 골자로 한다. 아베 총리가 2013년 7월 동남아 순방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해 국제무대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선전을 계속해 왔다.

현재의 일본 평화헌법은 전문에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아베 정권이 개정을 추진 중인 제9조와도 연결돼 있다. 9조는 1항에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나다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도쿄 강연에서 "첫 경험인 개헌에서 처음부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리"라며 "처음에는 쉬운 주제로 개정을 실현하고, 가능하면 2번째에 (헌법 9조 개정을)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

이탈리아로 밀려드는 아프리카 난민들 아프리카 난민들을 태운 보트가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실리아 메시나항에 도착하고 있다. 난민들은 아프리카북부 리비아를 통해 이탈리아로 들어오고 있다. 마테오 렌치 총리는 "지중해는 무덤이 아니라 바다"라며 "불법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부분 난민의 첫 출발지인 리비아의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난민들은 지중해를 건너는 도중 폭고 간 충돌 등의 이유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發 개헌론 강풍

'成 리스트'에 친박 핵심 줄줄이… 반개헌세력 위축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개헌론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개헌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학계·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개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4월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개헌을 통해 부패 사슬을 시전에 차단하는 것만이 부정부패 척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리스트의 진위를 가리고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식으로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만이 부패를 없애는 길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고쳐야 한다"며 "이걸 고치지 않겠다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계속 부패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5월이나 6월쯤에 유럽의 정·관·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과 유럽의 헌법과 선거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는 여야 의원 15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제는 개헌이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헌특위 구성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개헌론은 국회 안팎의 폭 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 핵심의 반대로 언제나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고비마다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경제정책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반대했다. 국회 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이 제동을 걸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 봇물"을 언급했지만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번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친박 핵심들이 거론되면서 박 대통령이 개헌론에 제동을 걸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6공화국 헌법은 1987년 민주화의 산물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이 불거졌다.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4년중임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가 공론화됐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두고 격론을 벌인 바 있다. /정세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박 대통령 비판 여론 속 산토스만 득봤다

한국과 콜롬비아 정상 간의 17·18일 이틀 동안의 만남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윈윈'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19일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월호 1주기에 콜롬비아로 떠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다. 반면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방문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활용했다.

콜롬비아에서는 박 대통령의 방문 직전 남서부 카우카 지방에서 좌익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공격으로 정부군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부터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벌여 온 산토스 대통령으로서는 위기였다.

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양국 간 비즈니스포럼에서 산토스 대통령의 제의로 카우카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향해 묵념을 올렸다. 이어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2014년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내세워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알바로 우리베 전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지내며 무장 반군에 대한 소탕작전을 펼쳤지만 2010년 대통령 취임 후 노선을 극우에서 중도보수로 바꿨다. 우리베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공세는 거세다. 박 대통령의 애도가 반대파의 공세를 누르는데 활용될 것은 불문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국 간 정상회담의 핵심 화두인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역시 더욱 다급한 쪽은 산토스 대통령이다. 한국과의 FTA는 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반대파의 반발이 심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하원의 반대로 개입 이후 비준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했다. 양국 간 FTA는 콜롬비아에서 최종단계인 헌법재판소 심의 중에 있다. 박 대통령의 방문은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좀 더 앞당기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산토스 대통령은 한국을 아시아로 진출하는 거점으로 구상 중이다. 그는 2012년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좌파가 집권한 국가들과 태평양동맹을 결성한 이래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일본과 밀월관계에 있는 멕시코 등과 달리 콜롬비아는 태평양동맹 내에서 유일하게 아시아국가와 아직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송병형기자

권력수뇌 공백… 나라는 경찰청장이 지켜라

식물총리에 행자부 장관도 대통령 수행… 세월호 집회에 경찰만 홀로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콜롬비아로 떠난 직후부터 19일까지 대한민국은 경찰공화국이 됐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식물총리로 존재감을 잃었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마저 박 대통령을 수행해 정국은 강신명 경찰청장의 손에 맡겨졌다. 16~18일 서울 한복판 시청광장·광화문광장에서는 시민들과 경찰 간 격렬한 충돌이 이어졌다.

양측의 충돌은 처음부터 격렬했다. 지난 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제 참석자들의 수는 주최측 추산으로 5만명(경찰 추산 9000명)에 달했다. 경찰 병력이 광화문으로 진출하려는 이들을 막아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경찰의 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경찰은 차벽트럭 10대 등 모두 40~50대가량의 차량을 동원했다. 경찰의 계산 작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소수의 시민들은 경찰과의 대치를 다음날까지 이어갔다.

주말인 18일에는 휴일을 맞은 시민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경찰은 병력 1만3700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동원했고, 안전펜스로 된 6겹의 차단벽을 설치했다. 시위대들을 향해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까지 대량으로 살포했다. 이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등 100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예고된 사태였다. 한 주 앞서 지난 11일 열린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은 행사 이후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바 있다. 1주기 당일 박 대통령이 출국할 경우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 역시 박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경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강 청장은 지난 13일 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토요일(11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차벽을 포함한 폴리스라인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루액 살포와 관련해 "얼굴을 조준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캡사이신 최루액이 코 등에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얼굴을 겨냥하지 말라는 분사규정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의 손에 맡겨진 정국은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7일까지 불가피해 보인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향해 "24일과 25일 다시 우리는 여기에 모일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고, 시민들은 함성으로 응답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경찰청이 19일 금개남 서위대로부터의 경찰관 부상, 차님 훼손 등의 사진(위)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세월호 참사관련 대학생 대모자 연행의 관계자들이 경찰의 무사병력 유가족-대학생-서민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아래). /뉴시스

4·19영령, 이총리 반겼을까 이완구 국무총리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부재 중 첫 공식일정으로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 5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표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부정과 불의에 맞서 꽃다운 목숨을 바치신 민주영령들께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사퇴를 촉구해 온 야당에서는 "4·19 민주 영령들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어느 민주 영령과 그 가족들이 곧 검찰에 불려갈 부패 총리, 거짓말 총리의 입에 발린 연설을 들겠느냐"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야당 '이완구 해임건의안' 셈법 고심

문재인 "주초부터 구체적 검토"… 김무성 "일주일만 참아달라"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사자인 이완구 국무총리에 강한 사퇴 공세를 퍼부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는 4·29 재보궐선거 빅카드를 놓고 사용 적기를 고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가 시간에 연루된 이후 줄곧 사퇴를 촉구해왔지만 정확한 시기는 못박지 않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19일 "주말을 넘기도록 (사퇴)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주 초부터는 해임건의안 제출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만 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본회의 일정은 23일과 30일에 잡혀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해임건의안 발의는 23일 또는 27일이 'D-day'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한다면 30일까지 표결을 기다리기 힘들다. 26일 본회의를 추가 협상으로 잡아 표결에 부칠 공산이 크다. 30일로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3일 전인 27일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새정치연합 내부적으로 2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이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대통령도 (중남미 순방 가서) 안 계신데 총리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냐"며 "일주일만 참아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입장에서는 27일 발의가 유리하다. 재보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결론을 먼저 내릴 예정이다. 이어 21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을 시도하는 등 수순밟기에 들어간다. 당 차원에서 금주초 해임건의안에 대한 구체적 성안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우윤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대한 여야 협상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이홍원기자 hong@

단호한 처벌대책 비웃는 軍 성범죄

국방부가 국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단호한 대책을 내놓은지 한달도 채 되지않아 또 다시 해군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해군은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령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중령은 지난 13일 여군 부사관 B씨를 불러 영외 식당에서 단둘이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가 부대 내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은 것을 계기로 헌병대에 접수됐다. 해군은 A중령을 보직 해임했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군은 "간부의 성폭력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A중령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파악하고도 처벌하지 않은 혐의로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C준장 또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준장은 자기 수하의 병사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은 채 가해자 병사를 다른 부대로 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는 군인, 교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서이기자 rockyan2178

4·19 혁명 기념식장 입장하는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19일 경남도청 강당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 주먹을 꽉 쥔 채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pressing Lee Soon Shin' Real Worth Through Korean Classical Music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will perform four creative gukak plays on the forth week of April. They will deliver the lives and thoughts of historical heroes like Admiral Lee Soon Shin through sounds. This admiral's life will be introduced at the gukak Talk concert 'Saturday Friendly Talk' on the twenty fifth. History critic, Park Jong Pyeong, will talk about the real worth of Admiral Lee Soon Shin who learned and inner trained endlessly. Park Jong Pyeong will discuss about the three 'Realness' of Lee Soon Shin. The 'Three Realness' means 'knowing how to strive forward', loving the country and the people wholeheartedly and Enduring hardships till the end'. Kugak play named 'Uhree', which is a remaking the Joseon Tae Jong prince dethronement incident, will be on the 'Friday Sympathy' from the twenty forth to the twenty sixth of this month. The voice of a singer and the sound of Korean Classical music will be collaborated. The plot of the story is about comforting the soul of the dead and leading him to paradis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orchestra will perform Juk Byuk Wha Jeon, Su Gook Aye, Suk Ja Jang Gum and Gang Gang Sul Ie. Vice chairmen of Korean Dance Association and Dae Jeon University Dance Studies Professor, Lim Hyun Sun will perform 'Gang Sun Young Ryu Tae Pyoung Mu' and 'San Jo Dance' at 'Wednesday Dance' this twenty second. And on the twenty third, the master of Gayageum Jung Soo Nyun, professor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raditional Arts Academy and Kim Sang Ah, professor of Han Yang University Korean Classical Music will perform Kim young Jae Ryu Hae Guem Shin Jo and Seo Young Suk Ryu Hae Guem Shin Jo.

/최고다이렉트 영어회화
Chris Kim(김훈균) 강사

이순신의 진면목을 국악으로 만나자
국립국악원 4월 넷째주 '풍류사랑방'

국립국악원이 4월 넷째 주 창작 국악극 4편을 대중에게 선보인다. '민족의 영웅' 이순신 제독 등 역사적 인물의 삶과 생각을 소리로 전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국악 토크콘서트 '토요정담'에서 이 제독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박종평 역사비평가가 출연해 끊임없이 배우고 내면을 닦은 이순신의 진면목에 대해 이야기한다. 박 비평가는 이순신의 모습을 통해 '3진론'을 논할 예정이다. '3진론'이란 나아갈 줄 아는 '進'(나아갈 진), 백성과 나라를 거짓없이 사랑하는 '眞'(참 진) 마음은 다해 끝까지 시련을 이겨내는 '盡'(다할 진)을 뜻한다.

조선 태종 시절 세자 폐위사건을 재구성한 국악극 '어리'는 오는 24~26일 '금요공감' 무대에 오른다. 가야금 연주자와 소리꾼이 주술사가 돼 양녕대군과 그의 연인 어리, 아버지 태종의 혼을 불러내는 방식의 구성이다. 소리꾼의 목소리와 국악기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망자의 혼을 달래 극락으로 이끈다는 줄거리다.

국립국악원 연주단은 판소리 적벽가 중 '적벽화전', 시조 '수국에 와', '석자장검', 민요 '강강술래'로 무대를 꾸민다.

오는 22일 '수요춤전'에서는 한국춤협회 부이사장인 임현선 대전대 무용학과 교수가 '강선영류 태평무'와 '산조춤', 궁중무용 '춘앵전' 등을 선보인다. 23일 '목요풍류'에서는 가야금 명인인 정수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와 김상아 한양대 국악과 교수가 각각 김영재류 해금신조, 서용석류 해금신조를 연주한다.

PAGODA

결국 1등은 애플이 아니라 三星일 것이다

강세준의 마켓포인트

삼성은 갤럭시S6 엣지 판촉전이 눈물나게 처절하다. 하지만 그렇게 절박해질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결국 1등은 애플이 아니라 삼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일 현재 환율로 애플의 시가총액은 785조3819억원, 삼성전자는 239조7968억원(우선주 포함)이다. 애플의 3분의 1도 안된다.

삼성전자는 영영 애플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인가. 2등은 몰라도 1등은 애플 자지인가. 한 세대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1등 토종 기업을 생전에 보는 걸 포기해야 하나?

정보기술(IT)에 문외한이긴 하지만 그렇게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

손자가 말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첫번째 비결이다. 장점을 살려 적의 단점을 공략하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일이 없다.

애플의 장점은 뭔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으로 지고 나올 때 시장은 감탄했다. "애플은 스마트폰을 파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생태계다."

애플 생태계란 건 뭔가. 잡스는 아이폰 설계도를 그리면서 동시에 앱스토어를 구상했다.

어플 개발자가 앱스토어에 작품을 올리고 소비자는 이를 산다. 애플은 소비자가 내는 요금 중 30%를 먹는다. 애플 앱스토어에만 있는 어플에 중독된 소비자들은 아이폰을 버릴 수가 없다. 아이폰은 단가가 싼 중국 폭스콘에 맡겨 만들면 된다. 뭐 이런 것이다.

아이디어를 선점한데다 원가가 싸니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직원 수도 1만4517명(2014년 12월 말)으로 삼성전자의 1%밖에 안되니 봉급이 세고 그래서 인재들은 계속 몰려든다.

그래서 애플의 상승효과는 계속 이어질 것인가. 스마트폰만 보면 약발이 다했다. 맥스보이는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도 비슷해졌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인건비 싼 곳에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삼성도 할 수 있다.

애플의 장점과 무기는 이미 다 노출됐다. 삼성은 적의 패를 다 봤다. 지피(知彼)는 된 것이다.

과제는 지기(知己)에 있다. "삼성은 애플 따라잡기도 바쁘다. 반도체 공장이 혁신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비아냥이 팽배하다.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다. 애플에게는 없고 삼성에게는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공장과 부품이다. 팀 쿡이 만들고 싶어도 엄두를 낼 수 없는 고유의 생태계를 삼성은 이미 갖고 있다. 바로 애프터서비스망이다. 애플은 부품과 공장이 없으니 아이폰이 고장나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고쳐줄 수 없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미 190여개의 A/S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삼성생태계의 중핵이자 삼성스타일 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디지털프라자 같은 판매점과 연계해 범지구적으로 확 늘리기만 하면 된다.

애플의 생태계가 개발자 중심의 '상부 생태계'라면 삼성의 생태계는 소비자와 밀착된 '하부 생태계'다. 위로부터의 혁명보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더 철저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성능만 놓고보면 아이폰6나 갤럭시S6나 별 반 차이가 없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애플만의 장점은 죽고 있고 삼성의 무기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리더들이다. 이들이 골목에서 나오는 자산들만의 본원경쟁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한다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기업가치 세계 1위 토종 기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삼성생태계가 스마트카까지 이어지면 그 땐 진짜 애플은 적이 안될 것이다.

"고장 나도 걱정마세요. 바로 옆 삼성서비스센터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뭐 이런 게 갤럭시S7의 광고 카피가 되길 바란다. /편집국장

의심되는 KBS 언론관

기자 수첩
천효진 <문화스포츠부 기자>

공영 방송 KBS의 언론관이 의심된다. 전국 언론인 노동조합 KBS 본부는 온라인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 기자 고용에 항의 중이고, KBS 예능 홍보담은 '뮤직뱅크' 관련 시혜성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 공식 사과했다.

일베 기자 고용 논란의 경우 법조계에서도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KBS 경영진은 해당 기자가 4월1일 정식 임용된 이후에도 묵묵부답이다. KBS 노조 본부는 "해당 기자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보편적인 정서가 아닌 반사회적인 수준이다. 공영 방송 기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전한 상태다.

그동안 일베는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해 비난 받았다. 방송엔 일베 사이트에서 만든 로고, 특정 어구가 이미지로 등장하고 시청자는 제작진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논란과 사과만 반복될 뿐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엔 세월호 희생자, 특정 지역 비하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게 징역1년 실형을 확정 선고하며 사법부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일베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던 몇 년 전과 시대 흐름이 바뀌었는데도 KBS는 요지부동이다.

KBS 홍보팀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뮤직뱅크' 안 하노이 기사를 써주는 기자들 중 한 명에게 '뮤직뱅크' 출연 가수와 제작진의 인터뷰 기회를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특히 공연 기자 중에도 해당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지극히 개인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보팀은 공식 홈페이지에 "담당자가 홍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썼고, 마치 취재에 조건을 내걸고 제한을 두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적극적인 홍보는 홍보 직원의 주 임무다. 그러나 기자들 KBS의 업무서로 보는 잘못된 언론관이 내재돼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또 비뚤어진 세계관을 지닌 기자가 전하는 KBS 뉴스는 과연 신뢰할 만한 지 묻고 싶다.

인사

■국토교통부
△차관정책보좌관 김윤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전보 △대률광주사무소 지건 민진호
△공정거래위원회(국토권익구) 천훈수
■EBS울교방송
△편성제작국 라디오센터부장 허윤희
■세계일보
△대일 협력담당 여운상
■고려대
△교육부총장 이남호

부고

▲윤길선씨 별세, 여정(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씨 부친상=19일 서울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2)2072-2033
▲오은주씨(전 실고 교사)별세, 최재봉씨(LG 화우시스 전문위원) 삼베=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2) 3010-2230
▲이덕상씨(전 현신상호신용금고 감사) 별세, 상진씨(C카드 과장) 한주씨(아국인은행 과장) 부친상, 김영수씨(케이엔ENG 대표) 박부상, 이은혜씨(GE 전무) 시부상=1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2)2227-7590

“지옥철 해결 않고 요금만 인상… 납득 못해”

서울시 일방적인 대중교통비 인상에 시민단체 “선 제도개선 후 인상” 요구

#보험설계사 백모(36)씨는 이르면 6월 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에 벌써 가슴이 답답하다. 지금도 하루에 10번 가까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한 달이면 20만원이 넘는 교통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요금이 오르면 기본요금 거리만 다닌다고 해도 최고 26만원까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멀리 있는 고객이라도 만나면 30만원은 우습게 넘기게 된다. 평균 월급이 250만~300만원인 그로서는 수입의 10%가량이 교통비인 셈이다. 백씨는 "수입은 몇 년째 거의 그대로인데 대중교통 요금만 큰 폭으로 오르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시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아니냐"고 분노했다.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요금의 대폭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누적되는 적자를 이유로 들었지만 서민가계의 부담 가중이 뻔한데도 공개적인 원가 검증이나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서울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250원과 15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012년 2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150원씩 인상한 이후 3년여 만이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130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 된다.

시는 이 같은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적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4245억원, 버스 309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원가보전율은 74% 수준에 머물러 시 재정으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운영기관 자구노력으로 요금 조정을 억제해 왔으나 건설된 지 40년이 지난 지하철 등 안전 분야 투자를 위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시민사회는 서울시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시민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공공연구원,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 노동당서울시당, 녹색당서울시당 등 8개 시민단체와 당이 일제히 서울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우선 서울시가 말하는 '원가' 개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가 2013년에만 343억원의 버스보조금을 부당하게 운용했으며 임원들의 억대 연봉이나 배당금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며 "이 비용을 원가라고 우기는 데 어안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 분야 투자를 위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투자는 서울시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자체사업이지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사항이 아니다"며 "도로나 교량의 보수 공사, 대형건물의 안전진단 지원과 같은 맥락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 9호선 운영회사의 운영수익이 4년간 168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시민들은 4량짜리 열차 안에서 고생하고 있다"며 "지옥철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과는 소통도 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에 계류된 '서울시 대중교통기본조례' 개정안에도 대해서도 우려했다. 개정안에서는 2년마다 자동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교통요금 물가연동제'가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 등은 "지금까지도 사전이든 사후든 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도저히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무책임한 방안이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요금 인상 전에 시는 적자라고 주장한 대중교통운영비용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진행하고 교통원가에 대한 검증을 해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발표해야 한다"며 "선 제도개선 후 요금인상 원칙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일방적인 요금 인상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버스·지하철 문제를 실효적으로 다룰 대중교통 노사민정 협동체이를 설치해 이용자와 대중교통기관 종사자 등이 일상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옥기자 psoo@metroseoul.co.kr

수출입은행, 콜롬비아 개발은행과 금융협력 MOU 17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시 대통령궁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과 네스토르 라울 카구에 구아우퀘 콜롬비아 개발은행 부행장이 금융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제공

로또복권 제646회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9	20	41	43	45	10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일치	2,215,488,203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일치	71,788,500
3등	5개 숫자일치	1,098,258
4등	4개 숫자일치	50,000
5등	3개 숫자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8561
회장·발행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문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3~3
독자센터 (02)721-9851
2002년 5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라00060

GS건설 '경희궁자이 오피스텔' 평균 청약 경쟁률 19대 1 기록

GS건설이 지난 17일 문을 연 경희궁자이 오피스텔 청약경쟁률이 19대 1을 기록했다.

17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현장 청약 접수를 한 결과 68실 모집에 1297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면적별로는 ▲25㎡ 10.7대 1 ▲27㎡ 41.4대 1 ▲31㎡ 5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9일에 당첨자가 발표되며 오는 20일 견본주택에서 계약이 실시될 계획이다.

장석용 경희궁자이 오피스텔 분양소장은 "오피스텔에 수익률이 현재 은행 금리보다 높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경희궁자이 오피스텔은 업무지구나 대학가 등 배후 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개장한 '신금호파크자이' 샘플하우스에도 오픈 후 주말까지 사흘간 총 1만5000여 명이 방문했다.

별도의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지 않고 공사 중인 실제 아파트 현장의 3개 세대(▲59㎡ A ▲84㎡ A ▲114㎡)를 샘플하우스로 꾸며 방문객들의 호응이 높았다.

신금호파크자이는 지하 3층, 지상 21층 10개동 전체 1156가구 규모다. 이 중 8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30일 당첨자 발표 후 5월 6일부터 8일까지 정당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16년 4월로 예정돼 있다.

/윤희성기자 yoonheesung@

지난 17일 GS건설 경희궁자이 오피스텔 견본주택에서 방문객이 모형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韓·中 카드사 "결제시장 국경 없다"

KB국민·우리·비씨카드
中 유니온페이와 제휴
핀테크시장 교차 공략 확대

국내 카드사들이 중국권 최대 카드 브랜드인 유니온페이와 전방위적인 제휴를 맺고 '한·중 결제시장' 공략에 나섰다.

해외 여행과 직접구매,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 결제시장에서의 우위를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거허원 UPI회장 "국내카드사 찾아… 양국 결제 시장 공략 확대"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거허원 차이나유니온페이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UPI) 회장은 지난 16일 국내 카드사 3곳을 방문했다.

올해 중국 방문의 해를 맞이 한국과 중국인들이 카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양국 결제 시장 교차 공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122억 달러(약 13조4000억원)에 달했다. 같은기간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전년보다 41.9% 증가한 115억7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3년 대비 41.6% 증가했다"며

우리카드는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거허원 UPI 회장(왼쪽)과 유구현 우리카드 사장이 '자유로운 여행카드' 출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카드 제공

모바일 카드 발급 및 결제 서비스 업무 제휴 협약식 후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왼쪽부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거화윤 차이나유니온페이 및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 동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카드 제공

"요우커로 인해 카드 장수와 사용 금액이 모두 늘었다"고 말했다. 결국 큰손 왕서방과 해외로 떠나는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잡기 위한 금융권의 국경없는 제휴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KB국민카드는 LG유플러스, UPI와 '모바일 카드 발급 및 결제 서비스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 발급받은 모바일카드로 중국에서 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KB국민카드는 유니온페이 브랜드가 탑재된 특화 모바일 카드 상품 개발을 비롯해 KB국민은행 등 주요 계열사와 공동으로 그룹 차원의 중국인 대상 금융 비즈니스 협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은 "이번 제휴는 카드사와 통신사가 손잡고 한국의 모바일 카드가 중국에서 사용되는 첫 사례로 중국 시장 선점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유니온페이 등 제휴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경 없는 혁신적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를 선 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드사 '국경없는 서비스 제공'

예약부터 귀국까지 아시아 국가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특화 카드도 출시됐다. 우리카드는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여행 특화 상품인 '자유로운 여행카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 카드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을 왕래하는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나온 플래티늄 카드다. 예약부터 귀국까지 해외여행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예약단계에서는 중국 비자 50% 할인과 항공권 최대 10% 할인을 비롯해 호텔 최대 20% 할인, 기내면세점 10% 할인 혜택이 있다.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마일리지가 최대 2배 적립된다.

아울러 공항 내 무료 커피와 데이터로밍 1일 무료, 공항철도·리무진·공항 고속도로 등도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유구현 우리카드사장은 "상품개발 뿐 아니라 지불결제 비즈니스 전체에 대한 양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카드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행객 대상 맞춤형 카드 출시

요우커를 위한 결제 활성화 방안도 확대됐다. BC카드는 UPI,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중국은련 카드 회원을 위한 MOU를 맺고 해외자유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협약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화서비스 개발과 제휴마케팅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3사는 '장성글로벌자유여행카드'를 활성화해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유치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서준희 BC카드 사장은 "이번 조인식을 계기로 중국 유니온페이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강화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방문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3사는 중국 유니온페이카드 회원 대상의 마케팅 외에도 각 사가 보유한 채널을 활용해 한국 여행상품을 공동 기획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한카드는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전식 선불카드 'KPASS 신한러브코리아카드'도 내놨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쇼핑한 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를 별도 서류 준비 없이 편리하게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경복궁과 창덕궁 등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 주요 고궁 입장료를 10% 할인해 준다. 아울러 공항 픽업과 샌딩 서비스 20% 할인, 공항 VIP 서비스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상진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변액보험 인기… 농협생명만 '울상'

저금리 장기화에 수요 ↑
보험사 상품출시 잇따라

작년 우리아비바 매각
라이선스 없어 판매 못해

최근 잇딴 기준금리인하와 증시 활황으로 수익률이 높은 변액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이 잇따라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라이선스가 없는 농협생명은 관련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울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식에 투자하는 171개 변액보험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5.95%에 달했다.

미래에셋생명의 프리미엄포커스주식형 펀드(12.59%), ING생명의 국내주식형 펀드(10.1%), AIA생명의 중소주식형 펀드(12.57%) 등은 연초 이후 수익률이 10%를 웃돈다. 최근 1년 동안 ACE생명보험의 인덱스 펀드1(11.93%), BNP파리바카디프의 SRI주식형 펀드(8.23%) 등은 비교적 높은 수익을 거뒀다.

지난해 4월 출시한 KB생명의 'KB골든라이프ELS변액보험'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까지 33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받았다. 출시부터 현재까지 5억5000만원의 초회보험료 실적을 기록한 것.

보험사의 관련 상품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

ING생명은 지난 6일 '무배당 오렌지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생명도 지난 13일 연금보험으로 전환하거나 투자 손실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화생명 플랜UP 변액적립보험'을 출시했다. 이 밖에도 푸르덴셜생명은 '무배당 VIP 변액연금보험'을, 교보생명은 '국군사랑 변액연금'을 출시했다.

이처럼 최근 보험사의 잇따른 변액보험 상품 출시에도 농협생명은 변액보험을 내놓을 수 없다. 지난해 우리아비바생명(현 DGB생명)을 인수해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바로 매각해 변액보험 라이선스가 없는 것.

농협생명이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변액보험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농협생명이 우리아비바생명을 매각할 당시에는 변액보험의 수요가 많지 않았다.

변액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지난 2011년 11조2000억원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2.2% 감소한 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순자산 증가율도 2012년 14.9%, 2013년 10.5%, 2014년 6.3%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농협생명 한 관계자는 "우리아비바생명을 매각할 당시 변액보험의 가치가 높지 않고 매각 이후에도 필요하면 당국에 라이선스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변액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투자해야하는 상품으로 현재의 인기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면서 "당분간 당국에 변액보험 판매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보장성보험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

"10만원 이상 결제땐 中여행권 추첨"

KB국민카드
'케이월드 유니온페이'
10만좌 돌파 이벤트

KB국민카드는 19일 '케이월드(K World) 유니온페이' 카드 10만좌 발급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케이월드(K World) 유니온페이'는 국내전용카드 수준의 연회비로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카드다.

앞서 KB국민카드는 지난해 9월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유니온페이가 보유한 전 세계 142개 국가 1960만 여 개 가맹점과 160만 여 대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수 있게 제휴했다.

이번 행사는 5월 31일까지 KB국민카드 중 유니온페이 브랜드가 탑재된 카드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중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응모 후 이 카드로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1등(2명) 200만원 상당 중국 여행권, 2등(10명) 3.75g 상당 순금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488명에게는 1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한편 현재 유니온페이 브랜드가 탑재된 '케이월드' 카드로 발급 가능한 상품은 'KB국민 누리카드', 'KB국민 굿데이 올림카드', 'KB국민 와이즈 올림카드' 등 총 7개이다.

/박상진기자 alive0203@

아모레퍼시픽株 승승장구, 400만원 초읽기

391만원 장마감 … 신고가 경신
포스코 제치고 시총 7위 올라

中 등 亞시장 매출 고공행진
액면분할 기대감 상승 견인

중국 상하이의 번화가인 화이하이중루에 위치한 바이성 백화점에 입점한 설화수 매장 /연합뉴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390만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시가총액도 포스코를 제치고 7위로 올라섰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라네즈 등 화장품 브랜드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시아 시장 유통구조 확대에 따른 매출 상승기대, 액면분할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으로 아모레퍼시픽 성장세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전일대비 6만원(4.27%) 오른 391만원에 장을 마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장중 한때 395만8000원까지 치솟아 400만원 턱밑에 다가서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은 22조8572억원으로 포스코(22조2326억원)와 네이버(22조420억원)를 넘어섰다. 지난 16일 이들 기업에 뒤져있던 아모레퍼시픽 시총 규모는 단 하루 만에 9000억원 가량 늘며 단숨에 7위로 올라섰다. 6위인 현대모비스(23조4111억원)와의 격차는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이 다음달 8일 액면분할을 예고하면서 분할 후 주가가 더욱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아모레퍼시픽의 유통주식을 늘리기 위해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에 나선다. 액면분할로 오는 22일부터 신주권변경상장 전날(7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아모레퍼시픽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투자 매수를 부채질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15일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를 기존 4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송은정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인 5430억원보다 10% 많은 5999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중국 관광객들의 선호도 상승, 요우커 유치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단체 관광객을 위한 전자비자 발급이 허용되는 점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면세점 매출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증권도 이날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전년 동기대비 32%, 49% 오른 1조2323억원과 2608억원으로 추정하고 목표주가를 430만원으로 제시했다.

삼성증권은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를 기존 333만원에서 453만원으로 상향하고 "2015~2017년 글로벌 업종 연평균 매출액 및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이 10%, 15%에 불과할 때 아모레퍼시픽은 연평균 20%, 35%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1분기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전년대비 면세채널 매출이 70% 급증하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며 "올해 6월 이후 2곳의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으로는 물론 아시아권 수출에서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짚어봤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돌아온 외국인, 국내 증시 이끈다

외국인 순매수액 5조 돌파

올해 들어 코스피가 상승랠리를 지속한 가장 큰 원동력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풀린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 증시로 유입되면서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띤 것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액은 5조3795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1915.59에서 2143.50으로 11.9% 오르는 이 기간에 기관은 4조5162억원 어치를, 개인은 1조8481억원 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결국 외국인이 올해 증시 활황을 이끈 셈이다.

지난 17일 하루만 봐도 외국인은 2799억원 어치를 순매수한 데 반해, 개인(-1486억원)과 기관(-1081억원)은 순매도했다.

다만 지수가 542.97에서 706.90으로 30.2%나 상승한 코스닥에서는 최대 매수 세력은 '개인'이었다. 이 기간 코스닥에서 개인들은 6969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2228억원 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498억원)도 순매도에 동참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한국의 기업 실적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주가 상승세가 당분간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대규모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강현철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최근 주가 상승은 유동성 뿐만 아니라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등 단기 모멘텀에 의한 비중 조정이 일단락되면 향후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근홍기자 ein@

조기상환과 안정성을 강화한
ELS 9종 공모

KDB대우證

연 9.60% 수익 ELS 등 670억원 규모 9종 모집

KDB대우증권이 지난 17일부터 최대 연 9.60% 수익을 추구하는 ELS 등 총 9종을 670억원 규모로 모집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12372회 HSCEI·EuroStoxx50-S&P50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첫 번째 조기상환 배리어를 87%로 낮춰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인 만기 3년 6개월 자동조기상환 상품이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87%(6·12·18개월), 85%(24·3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9.6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에 연 9.60%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KDB대우증권은 하방 녹인 배리어 수준을 45%로 낮춤으로써 안정성을 높이면서 손실 가능성을 줄인 '제12886회 EuroStoxx50-S&P50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하방녹인 45 ELS'와 '제12887회 HSCEI·EuroStoxx50-S&P50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하방녹인 45 ELS' 2종을 오는 20일부터 함께 판매한다.

/김보배기자

글로벌 유동성… 상승세 유지
유로존 재무회의 최대 변수

[주간증시전망]

이번주(20~24일)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오는 24일 예정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결과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 것도 주요 관심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코스피지수는 5일 연속 상승하며 2143.50으로 마감했다.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3000억원 이상을 순매수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도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인 706.90으로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비중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 들어 11%를 넘어섰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랠리는 외국계 자금 때문이다.

이번주 증시도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 강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그리스 리스크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24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72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분할금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 그리스의 경제개혁안 승인이 좌절될 경우 글로벌 증시의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앞서 지난 2월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에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4개월 연장해 주기로 합의했지만 그리스가 제출한 경제개혁안 승인이 지연되면서 분할금 지원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다.

고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해결책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한데다 그리스 역시 '굴욕적인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그리스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현재 시장은 리스크에 둔감한 모습"이라며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고려할 때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주에는 21일 포스코를 시작으로 대형주 중심의 1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진다.

김진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코스피 숨고르기 과정에서 전기말 업종별 순환매 장세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낙폭과대 업종군인 은행, 유통, 조선이 관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배기자 bobae@

17일 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1.27%(8.59포인트) 오른 706.90으로 장을 마감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현황판을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7년3개월만에 7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폰파라치는 갑의 횡포"

전국이동통신유통協 이통사 상대 법적대응 나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

휴대전화 판매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일명 '폰파라치'와 관련된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폰파라치는 휴대폰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19일 KMDA에 따르면 통신시장 불공정관행 철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고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먼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고 있는 '폰파파라치'(폰파라치) 제도에 대해 "이통사가 만든 갑의 횡포이며 이들은 (제도를) 수익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KAIT에는 이통3사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종천 KMDA 이사는 "폰파라치 제도는 통상 벌금 2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인데 이 외 별도의 페널티를 매기는 제도가 있다"며 "이 벌금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추가로 징수되는데 페널티를 주는 평가 기준이 불명확해 폰파라치가 도입된 2013년 1월 이후 작년 4월까지 거둬들인 벌금이 3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을 더 주거나 덜 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휴대폰을 개통한 소비자들에게 폰파라치 제도를 알려주는 안내문자 발송도 시작했다.

협회는 정상적인 폰파라치 제도를 명확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 부족해 제도의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동사들이 폰파라치 관련 채증을 하는 유통점에게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등 경쟁이 과열돼 채증 조작이 일어나거나 채증에 걸린 유통점에게 다른 유통점의 채증을 잡아오면 감면해주는 '역파라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폰파라치에 걸린 유통점 간에도 벌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유통망에 대한 이통사의 경쟁사 폰파라치 적발 강요, 이통사 마음대로 적용하는 벌금액, 조작 채증 등의 문제점을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어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법(단통법)으로 이동사들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당편취이득'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임은정기자 hm1138@metroseoul.co.kr

손·팔 움직임 불편해도 스마트폰 터치 불편 없다

삼성전자 상지장애인용 앱 '두웰' 개발

장애인 육근홍 씨가 손이나 팔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웰'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손이나 팔 동작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상지 장애인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보조 입력 기구를 활용해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두웰(Dowell)'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두웰은 상지 장애인들이 평소 컴퓨터에 연결해 사용하는 보조 입력 기구를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다.

상지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헤드마우스, 트랙볼 등 기존 기구를 스마트폰과 연결해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서는 탭이나 드래그 등 터치 동작을 선택하고 하단에서는 메뉴, 홈, 뒤로 가기 등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하드웨어 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두웰은 하드웨어를 제어해야 하는 앱 특성상 제조사 협력이 필요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갤럭시S3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두웰 개발을 지원한 이상묵 서울대 교수는 "나 같은 중증 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가장 힘든 부분이 터치인데 두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맞아 집안의 가전제품도 제어할 수 있게 돼 삶을 크게 바꿔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장애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지속 개발해 스마트폰에 적용해 왔다.

갤럭시 S6에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적용해 업계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했다.

/김성현기자 yco@

[르포] LG 인적성 시험장 가보니

퀵서비스 이용 헐레벌떡… 수능장 방불

언어이해·도형추리 어려워

18일 서울 양천구 신정2동 목동중학교 입구에는 LG그룹 인적성검사시험을 치르기 위해 구직자들이 줄이어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은정 기자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2동 목동중학교 입구. LG그룹에 입사하기 위해 두 번째 관문인 인적성검사를 치르기 위한 응시자들의 긴장한 모습이 엿보였다.

지난 9일 LG그룹 채용 서류합격자가 발표된 데 이어 이날 서울, 부산 등 11개 도시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인적성검사가 일제히 치러졌다.

고사장 앞에서 이날 오전 다른 회사의 인적성검사를 보고 LG그룹 인적성검사에 응시하기 위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지각을 하지 않으려는 취업준비생을 보면서 시험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다.

LG그룹 인적성 검사가 치러진 목동중학교 정문이 닫히던 오후 1시46분. 택시 한 대가 도착했다.

택시에서 내린 정모 지원자는 이날 오전 잠실고에서 치러진 금호타이어 인적성검사를 마치고 LG전자 인적성검사를 보기 위해 이동했다고 전했다. 그는 택시기사가 길을 헤맸다며 늦은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어쩔 수 없지만 문 앞에서 지각해 문이 닫히니 마음이 아프다"며 "1분만 일찍 왔어도 응시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전했다. 그의 손에는 LG그룹 인적성검사를 대비하기 위해 푼 문제지가 쥐어져 있었다.

LG그룹 인적성검사는 총 342문항 50분간 진행된 인성검사와 언어이해, 언어추리, 인문역량(한자, 한국사), 수리력, 도형추리, 도식적추리 등 총 125문항으로 140분간 진행된 적성검사로 구성됐다. 이날 고사장의 문은 오후 6시30분이 지나서야 열렸다.

인적성검사를 본 취업준비생들은 언어이해, 도형추리, 도식적추리 등 유형이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지원자 박모씨는 "예상외로 언어이해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작년 하반기 대졸공채부터 추가된 인문역량에 대해서는 상당수 지원자가 어렵지 않았다는 평을 전했다. 한국사의 경우 회사와 과거·현재의 역사를 적절하게 조합한 문제가 나왔다.

이후 남은 LG그룹 채용 절차는 면접과 신체검사를 거쳐 7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임은정기자 sun718

삼성전자의 '갤럭시 S6'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The Avengers: Age of Ultron)' 내한 행사와 함께 했다. 사진은 17일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내한 행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의 삼성전자 갤럭시 전시 부스에서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가 갤럭시 S6로 셀피를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크리스 에반스도 '갤럭시 S6'로 "치즈"

삼성전자 '어벤져스' 마케팅

삼성전자는 갤럭시S6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내한 행사와 함께 했다고 19일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내한 행사장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영화 속에 등장한 '갤럭시' 콘셉트 제품과 '어벤져스' 캐릭터를 적용한 갤럭시 S6의 후면 커버 등이 함께 전시됐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배우 크리스 에반스가 갤럭시S6로 셀피를 촬영하거나 어벤져스 캐릭터를 적용한 갤럭시S6의 후면 커버와 테마를 소개했다.

또 이날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레드카펫 행사에서 크리스 에반스가 국내 팬들과 함께 갤럭시 S6로 셀피를 촬영했다.

/이은정기자

"현대글로비스 중고차 편법영업에 밥줄 끊긴다"

중고차 구입·수리 후 재판매 '오토벨'
중고차 소매활동 제한 규제 비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입법취지 웃음거리

26세 김모씨는 4년 전 군대에서 제대하고 중고차매매 시장에 뛰어들었다. 대기업에 들어갈 만큼의 스펙이 안되니 전문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지인들로부터 "자동차 딜러는 100% 영업직이니 노력하고 수완만 좋다면 매월 500만원 수익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다. 초기 비용도 필요 없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그의 수익은 월 100만원에 자 연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SK엔카 등 대기업 중고차 매매 브랜드의 대량 매입으로 김씨가 매매할 차량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 됐다.

#경기도 부평에서 중고차 매매상을 하는 정모(28)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문대 출신으로 취직이 쉽지 않았다는 그는 "알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대기업이 물류 일감은 물아주다 못해 중고차시장까지 잠식해 그나마 우리같은 사람 비빌언덕의 '밥줄까지 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현대글로비스 등 재벌 기업의 대량 중고차 매입에 개인 딜러들이 설 자리를 잃고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 물류 회사인 현대글로비스는 2001년부터 중고차 경매 시장에 나섰다. 올해부터는 내 차 팔기 서비스인 '오토벨'을 통해 중고차를 직접 매입하는 영역까지 나섰다.

19일 현대글로비스에 따르면 '오토벨' 서비스는 일반인들로부터 중고차를 산 다음 수리 등을 거쳐 경매절차로 소매딜러들에게 판매한다. 자동차매매업은 2013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2016년까지 대기업의 중고차 소매활동은 제한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이 규제를 교묘하게 빗겨갔다. 정부가 정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입법취지를 비웃듯 소매로 사고 경매로 파는 편법이다. 자동차 매입에는 직접 나서고 판매는 경매를 통한다. 직접 판매하면 불법이지만 중간에서 이윤을 남기기는 마찬가지다. "전문컨설턴트가 전화 한 통이면 고객님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매입합니다"고 광고까지 하고있다. 통 큰 이벤트로 차량용블랙박스까지 추첨해서 준다.

이 같은 조직적 공세에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측은 대기업 브랜드들의 중고차 매입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대기업 중고차매매브랜드의 자동차매입, 판매 물량은 매해 급증세다. 작년 한 해 현대글로비스가 경매로 판매한 중고차 대수는 약 7만7000대다. 한주일에 1600대를 판매한 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중고차매매업자는 전국 4700개, 종사자는 약 4만명 수준이다. 중고차매매 종사자의 60% 이상은 20~30대의 젊은층으로 짜여된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관계자는 "중고차매매업은 그나마 화려한 스펙이나 자기자본이 없이도 노력할 자세와 의지만 있다면 밥줄으로 꾸려들 수 있는 시장"이라며 "블로그나 트위터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만 잘 다룰 줄 알면 광고도 용이한 영역이라 젊은층이 많은데 최근들어 시장구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마케팅 영역에선 대기업에 밀릴 수밖에 없다. 현대글로비스는 페이스북 운영, 라디오 광고 등은 물론 중고차 시장의 주 고객인 30~40대 남성을 공략하기 위해 야구장 본부석에 펜스 보드 광고를 설치하는 등 일반 영세 매매업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서울 영등포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오모씨는 "2년 새 자동차 매입 물량이 70% 가량 줄었다"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엔 현대 기아차 신차 전시장을 활용해 중고차를 매입하고 현대캐피탈까지 붙여서 사람들을 잡아끄는데 당해 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가) 소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관련한 위법 사항은 없다"며 "매입 물량도 중고차매매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큼 많은 물량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호태기자 [illegible]

[르포] LG이노텍 광주 G4카메라모듈 생산 공장 가보니

7번의 이물 제거·수백번 테스트 '비지땀'

LG이노텍 카메라모듈 생산라인에서 만난 여직원들의 얼굴은 애끈했다. 화장이 허용되지 않기때문이다. 마주친 직원은 방진복을 입고 면날으로 카메라모듈의 테스트 공정을 진행 중이었다. 화장품의 분가루 한톨도 허락하지 않는 미세공정은 품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다.

17일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LG이노텍 광주공장은 이달 말 공개되는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G4'에 들어가는 카메라모듈을 생산하느라 비지땀을 흘리는 모습이었다.

LG이노텍은 조리개값 F1.8에 1600만 화소 손떨림보정(OIS) 기능을 적용한 후면 카메라모듈과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모듈을 이달 초 동시 양산했다. 이 제품들은 LG전자의 G4에 탑재된다.

LG이노텍은 해당 카메라모듈을 개발하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렸다. 광주공장에서 총 300명의 인원이 카메라모듈 생산에 매달리고 있다.

G4에 탑재되는 카메라모듈은 한국 광주공장과 중국 연태공장에서 생산된다. 광주공장에서는 전면·후면카메라 모듈, 중국 연태공장에서는 전면카메라를 생산한다. 광주공장의 생산량은 월 200만 대 수준이다.

유동국 LG이노텍 카메라모듈개발담당 책임연구원은 "해당 카메라모듈은 전 제품에 비해 소비전력은 65%, 손떨림 보정은 20% 정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G4 카메라모듈 생산라인은 출입 시 청결상태가 엄격히 관리된다. 출입자는 방진복, 방진화, 방진모, 마스크와 두 겹의 장갑을 착용한다. 정전기 테스트, 방진화 바닥 세척, 에어샤워 등 7차례의 이물제거 절차를 거치고 10존 클린룸에 들어갈 수 있다. 10존은 1세제곱피트(약 2만8300㎤, 약 30㎝ 길이의 정육면체 크기)의 공간에 0.0005㎜ 크기의 먼지가 10개 이하인 상태다.

LG이노텍은 약 3개월을 거쳐 '어드밴스드 액티브 얼라인' 공정을 개발했다. 이 공정은 6겹의 대구경 렌즈가 겹쳐진 경통부와 이미지센서를 결합하는 핵심공정이다. 기존 액티브 얼라인 공정보다 정밀도가 40% 향상됐다.

LG이노텍의 카메라모듈은 용접, 색보정, OIS, 화질, 최종 등 총 5단계의 테스트 공정을 거친다.

LG이노텍은 OIS기능 테스트를 위해 수십 대의 검사장비 안에 카메라모듈을 넣어 수백 번 흔들면서 촬영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G4 사용자가 사진을 찍을 때 손이 떨리는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 공정이다. 최형신 LG이노텍 카메라모듈 제조팀장(부장)은 "카메라모듈은 G4에 들어가는 만큼 고성능"이라며 "그만큼 생산라인도 수준이 높다"고 강조했다.

/광주=정은성기자 [illegible]

LG이노텍 광주공장 직원들이 LG전자 G4의 카메라모듈을 소개하고 있다. G4는 현존하는 카메라 중 가장 낮은 F1.8 조리개 값을 가진 1600만 화소 손떨림보정(OIS) 카메라 모듈을 탑재했다.

김대훈 "ICT로 중남미 관통"

<LG CNS 사장>

한-콜롬비아 비즈니스 포럼 참석

김대훈(사진) LG CNS 사장이 콜롬비아 보고타 교통카드시스템 성공사례를 발판 삼아 중남미국가 정벌에 나선다.

LG CNS에 따르면 19일 전달 양국 정상과 주요 경제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한-콜롬비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김사장은 "LG CNS는 대한민국 IT서비스기업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향후 콜롬비아를 거점으로 칠레, 페루, 브라질,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앞선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LG CNS는 콜롬비아의 전자정부(e-Government) 사업에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한-콜롬비아 ICT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선 2011년 7월 수주한 3200억원 규모의 보고타 교통카드시스템이 성공사례로 소개됐다.

보고타 내 26개 터미널과 7700대 버스에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했다. 향후 1년 내에 총 151개 터미널과 1만2000대 버스에 한국산 교통카드단말기와 시스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보고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콜롬비아는 물론 중남미에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철도 통신 기술, 자동 운임 징수 시스템, 운행정보시스템(FMS), 스크린 도어 시스템 등 스마트교통분야 수주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김 회장은 해외성과를 평소 강조해왔다.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비전2020' 달성을 위한 3대 과제 중 하나로 '해외사업 본격 성장'을 꼽았다.

김 회장은 "해외사업에서 반복 가능한 사업모델과 탄탄한 고객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역설했었다.

/정은경기자 [illegible]

朴대통령 남미순방… 희비 갈린 에너지公

한전, 유일하게 동행— 新자원개발 컨트롤타워
석유公, 해외유전 사업 부실화— 구조조정 1순위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동행하며 남미 4개국 순방길에 올랐지만 다른 에너지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빠졌다.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에 주도권을 가졌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이번 순방에 물을 먹은 것이다.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수사 영향도 있지만 이번 남미 순방을 계기로 에너지공기업의 권력이 확실히 교체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조 한전 사장은 16~27일 대통령 남미 순방 경제사절단에 명단을 올렸다. 조 사장은 박 대통령과 함께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남미 4개국을 모두 찾는다. 남미지역에서의 자원개발 사업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놓겠다는 생각이 컸다는 게 한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첫 순방국인 콜롬비아에서 한전은 콜롬비아 Intelligent-전력관리원 등과 발전소 구축 등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신재생 화력 송배전 분야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의 풍부한 전력자원을 연결하는 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해 한전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한전은 밝혔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이근탁 기술본부장도 칠레 순방에 동행하면서 전기 발전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며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도 칠레와 페루를 찾아 에너지 관련 사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오른쪽부터),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성공불융자 집행기구로 기업의 해외진출을 컨트롤해왔던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 등 에너지 3사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다.

이들 에너지공기업은 검찰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와 감사원의 현장 감사 등과 맞물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석유공사 등은 해외유전 사업 부실화 등으로 난처한 입장"이라며 "정부에선 석유공사 등의 해외자산 매각 실행 과정을 지켜본 뒤 방만경영 중점관리 점검 대상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영국 다나사 인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10개 사업에서 2조6841억원의 손실이 이미 확정됐다. 가스공사는 미얀마 AD-7 해상광구 탐사사업 등 4개 사업에서 7042억원의 손실을 봤다. 광물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자키드노 금 탐사사업 등 5개 사업에서 298억원의 손실이 났다.

석유공사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남미시장의 사업성이 좋고 협력 네트워크가 깔려 있다고 해도 공사 자원에서 나서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광물공사 관계자도 "(볼리비아 동광 사업 부실 등) 여러 난제가 겹치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처지가 못된다"고 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대한항공, 러 이르쿠츠크 직항편 운항 재개

내달 18일부터 주 2회

대한항공이 다음달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바이칼 호수로 유명한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정기 직항편 운항을 재개한다.

주 2회(월, 금) 운항하는 인천~이르쿠츠크 노선에는 전 좌석 주문형 오디오비디오시스템(AVOD)이 장착된 159석 규모의 B737-900ER '보잉 스카이 인테리어' 항공기가 투입된다. 비행 시간은 약 3시간 40분이다.

출발편은 오후 8시 50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0시 5분 이르쿠츠크공항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오전 2시 30분 이르쿠츠크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7시 1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유럽인들이 즐겨 찾는 이르쿠츠크는 천혜의 자연 경관과 유럽식 문화유산으로 인해 '시베리아의 파리'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있다. 동(東)시베리아의 행정·경제·문화 중심지이자 수도인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주요 기착역 중 하나다. 또 세계에서 가장 깊은 민물 호수인 바이칼 호수의 관광 거점이기도 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인천~이르쿠츠크 직항편 운항을 계기로 시베리아와 바이칼 호수 등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더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

반려동물 건강도 스마트하게 지키세요

SKT, 액세서리 '펫핏' 출시

SK텔레콤은 19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바탕으로 반려견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목걸이 형태의 앱세서리(앱과 액세서리를 합친 용어로 특정 앱과 스마트폰 액세서리가 연동되는 제품) '펫핏'을 2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애견협회의 작년 통계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의 비율은 17.9%이다. 총 570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으나 비만율이 30%에 달해 반려동물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료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펫핏은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반려견의 운동량, 칼로리 소모량 및 수면량을 세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펫스케어 기기다.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4㎝·1.5㎝로 세계에서 가장 작다. 무게는 500원 동전보다 가벼운 6.7g에 불과하고 착용 상태에서 목욕을 시킬

수 있는 생활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펫핏은 지난 달 초 도쿄 오다이바의 국제전시장(빅사이트)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애완동물 및 용품 박람회'에서도 애견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오는 20일 이후 오픈마켓에서 6만9000원에 판매된다.

/정문경기자

두산인프라 '中 공작기계 전시회' 참가

무인가공시스템 2종 전시

두산인프라코어(대표이사 사장 손동연)는 20일부터 6일간 중국 베이징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리는 '2015 중국 공작기계 전시회(CIMT: China International Machine Tool Show)'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CIMT는 세계 4대 공작기계 전시회 중 하나로 격년으로 개최된다. 올해의 경우 약 3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전시회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선보인다. 2대의 공작기계에 로봇시스템을 결합해 가공물을 옮겨가며 완성시킬 수 있는 무인 가공시스템과 12개의 팔레트(pallet: 운반대)가 자동으로 가공물을 교환하여 작업할 수 있는 무인가공시스템(Linear Pallet System)을 전시할 예정이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높아지는 생산 효율화 요구를 반영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

KT는 다음달까지 'ucloud CDN' 상품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올 연말까지 구간별 이용금액을 최대 38%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KT제공

유클라우드 CDN 가입하면 연말까지 기본료 구간 '공짜'

KT, 가격할인 이벤트

KT는 다음 달까지 'ucloud CDN' 상품을 신청하는 고객들에게 올해 연말까지 기본료 구간은 무료, 구간별 이용 요금은 최대 38%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는 영화, 방송, 게임 등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트래픽을 분산해 최상의 전달 경로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트래픽 폭증 등 예상하지 못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국내 1위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유클라우드 비즈'를 제공하고 있는 KT는 국내 최고의 클라우드 기술과 국내 최다 고객 대상 서비스를 운영해본 경험을 토대로 더욱 고도화된 CDN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클라우드 CDN은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는 물론 서비스 가입 신청, 운영 등의 모든 절차가 웹페이지에서 가능한 신속성과 편리함이 장점이다. 초기 셋업 비용이 들지 않고 별도의 약정 없이 데이터 전송량에 따른 이용요금만 지불해 더욱 경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 유클라우드 CDN 서비스를 신규 신청하는 고객은 연말까지 매월 200기가바이트(GB)의 기본료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대 38%까지 구간별 이용 요금이 할인된다.

/정문경기자 hm0108@

中소 대상 면세점 유치 전쟁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관세청은 오는 7월에 서울시내 3곳에 신규 면세점을 선정한다. 이 중 1곳은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차지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자재 전문회사인 유진기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MBC 문화방송 사옥에 시내면세점을 설립키로 하고 최근 MB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면세점 입점과 함께 향후 공공사업 활성화와 문화콘텐츠 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시내면세점 사업 진출을 계속 검토해 왔다"며 "사업권을 획보하면 면세점 외에도 기존 방송시설을 활용한 공연장이나 호텔 등 면세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하이브랜드도 시내면세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면세점 진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업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이미지 예비뉴 /뉴시스

유진기업·하이브랜드·하나투어 등 경쟁 치열

준비를 해왔다. 하이브랜드 측은 취약한 상품 구색을 채우기 위해 외국 종합쇼핑몰과의 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하이브랜드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 사업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며 "하이브랜드 인근에 농협 하나로클럽과 코스트코, 이마트 등 대형 할인매장도 많아 집객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인천공항 면세점에 진출한 엔타스듀티프리, 하나투어 등도 시내면세점 신출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하나투어는 지난 3월 토니모리, 로만손, 흥연쇼핑 등 10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천공항에 진출했지만 시내면세점은 단독 입찰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앞으로 시내 면세점에도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면세점의 매출은 전체 면세점 비중에서 5% 미만이지만 신장률은 60%에 달한다"며 "내수 경기 침체 속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면세점 사업권 획득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en2un@metroseoul.co.kr

롯데마트 어린이용 캠핑용품 특가 판매

19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과 어린이가 어린이용 캠핑용품을 선전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봄을 맞아 늘어나는 캠핑 수요에 맞춰 '키즈 캠핑 기획전'을 열고 텐트, 침낭 등 어린이용 캠핑용품을 시중가 대비 4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연합뉴스

현대 H몰, 커피 PB브랜드 론칭

현대백화점그룹(회장 정지선)의 온라인 쇼핑몰 현대H몰이 원두커피 편집매장인 '어반핏'과 협업해 커피브랜드 '허쉬(HUSH Hmall Urban Style House coffee)'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자체브랜드(PB) 커피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몰이 브랜드 론칭과 함께 내놓은 첫 커피는 케냐 AA품종 80%와 브라질 세하도 품종 20%를 섞은 제품이다. 부드러운 질감에 스트로베리와 라임류의 신맛이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종류는 용량에 따라 100g에 200g으로 나눠지며 가격은 각각 1만3000원과 1만9000원이다. 소비자는 현대H몰 메인 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정은미기자 21cen2un@

신세계, '상생' 말할 자격 있나?

기자 수첩
김성현
<생활유통부 기자>

지난달 이마트가 '어가든가'라는 이름 아래 참돔 판촉행사를 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마트는 거문도 참돔을 대량으로 구입한다고 보도됐다. 어린 시절 자란 고향이라 반가운 소식에 거문도의 참돔 양식업자들과 통화를 시도했다.

기쁜 소식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쌓여가는 물량에 어쩔 수 없이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았다는 양식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민을 돕기 위한 판촉 행사'라는 홍보와 달리 어민들로부터 참돔을 선지거래가는 커녕 생산 원가에도 못미치는 헐값에 구입해 판매한 것이다.

이에 이마트의 '어가든가' 실상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혹스러워하는 이는 이마트 측이 아닌 거문도 어민들이었다.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하던 참돔이지만 이마트 측의 비위를 거슬리게 해 그나마도 못팔게 될까 걱정한 것이다.

이후 신세계 이마트의 실체에 대해 좀 더 취재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동조합 탄압과 불법 직원 사찰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은 이마트. 이후 그들은 얼마나 변화했을까.

취재 결과 이마트 근로자들은 여전히 탄압받는 권리를 찾기위해 외치고 있다. 여전히 이마트는 노동자들의 소리를 묵살하고 그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었다.

이마트 취업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해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직원 불법사찰에 이용됐던 이 규칙은 아직 존재한다.

노조의 신인사제도에 관한 논의 요구에도 회사 측은 귀를 막고 있었다. 노조 탄압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심지어 노조 탄압의 선두에 선 임원 중 일부는 승진까지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다. 비윤리적 행위가 기업 내에서 능력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기회가 될 때 마다 "직원은 제2의 고객"이라는 말을 강조한다. 또 최근 모 대학에서도 100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서서 인문학과 함께 '상생'을 역설했다. 그가 생각하는 제2의 고객은 탄압의 대상이자 불법사찰의 대상인걸까? 진정 '상생'을 강조할 자격이 있는지 정 부회장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아모레·LG '한방' 내세워 中 공략 강화

LG '더 사가 오브 수' 출시
아모레 면세점 전용세트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과 LG생활건강(부회장 차석용)이 한방 화장품을 내세워 중국인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면세점을 비롯해 중국 시장에서 두 업체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LG생활건강은 이달 초부터 롯데면세점 본점과 코엑스점에서 임시매장 형태로 새로운 한방브랜드 '더 사가 오브 수'를 선보이고 있다. 이 브랜드는 '후'의 하위 브랜드 성격으로 '후'보다 가격을 낮춰 대중성을 내세운 브랜드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실제 후의 최고가 기초라인이 70만원에 달하는 반면, 더 사가 오브 수의 '선예윤' 기초 라인은 5만~13만원, '진예윤' 라인은 8만~25만원 선이다.

중국인을 겨냥한 브랜드인 만큼 국내 보다는 중국 현지 판매에 집중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먼저 판매한 뒤 올해 중국 백화점에 진출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현재 임시매장에 내놓고 있는데 국내 보다는 중국 진출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도 면세전용 세트 상품 판매는 물론 제품 카운셀링 등 중국 고객 맞춤식 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인기 제품을 2개로 엮은 '듀오 제품'과 세트 안에 견본 제품을 포함시킨 '선물세트'를 면세 전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국 여성의 미용 습관, 사용감을 조사해 제품·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설화수는 현지 주요 도시 백화점에서 54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2011년 진출 이후 연평균 145%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방이라는 소재가 중국인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글로벌 브랜드와 차별화 전략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글로벌 롯데닷컴, 롯데백화점 상품 28개국에 선봬

글로벌롯데닷컴(대표 김형준)은 20일부터 롯데백화점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의 28개국 해외배송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롯데닷컴은 롯데닷컴의 해외 버전으로, 지난해 2월 해외 역직구족을 위한 쇼핑사이트다. 이번에 롯데백화점과 손잡고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입점시키고, 이에 맞춰 배송서비스 국가도 기존 19개국에서 28개국으로 늘렸다.

글로벌 롯데닷컴은 해외 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유아동 브랜드와 홍삼, 패션잡화 등 100여개 브랜드 선정해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대표 브랜드로는 프린세스 스톤헨지 메트로시티 등 잡화브랜드, 커밍스텝 등 영패션 브랜드, 타지스, 시리즈 등 남성패션 브랜드 등이다. 유아동 브랜드로는 프렌치캣 블루독 베베 톰키즈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도 판매한다.

"롯데몰 김포공항, 어린이 영어 체험교실 개최" 19일 오전 롯데몰 김포공항에서 진행하는 '1%의 나눔 씨앗 영어클래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클래스 도우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롯데자산개발 제공

필립모리스, 100억 개비 수출

한국필립모리스(대표 김일우)의 국내 제조시설 설립 이후 누적 수출 물량이 100억 개비를 돌파했다.

19일 한국필립모리스에 따르면 양산 공장은 2012년 9억 개비, 2013년 31억 개비, 지난해 45억 개비를 호주·일본·홍콩 등에 수출하며 2년 만에 5배의 수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올 초 누적 수출 물량이 100억 개비를 넘어 섰다.

무엇보다 입맛이 까다롭고 품질 요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이 본격화됐다. 양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일본 각지의 주요 소매점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것.

실제로 양산 공장은 환경 경영에 대한 국제적 공인과 세계적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인정받아 전 세계 50곳의 필립모리스 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품질지수 1위 공장으로 여러 차례 선정됐다.

미카엘 프로코프츅 양산 공장장은 "품질 요구 사항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데 일본과 호주로의 수출은 세계적인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100억 개비 수출 달성은 2012년 신공장 확장 이전을 통한 안정적인 제품 공급과 우수한 지역 인재 확보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02년 국내 제

담배 제조와 포장공정 시설 /한국필립모리스 제공

세계적 수준 품질 인정… 국내 생산량 45% 해외로
품질 기준 까다로운 일본·호주 시장 본격 진출

조시설을 설립 후 2012년 2000억원을 신규 투자해 포장공정 설비를 확장하고 원료가공 시설을 신설했다. 기존 공장의 2배 이상인 연간 400억 개비의 생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최첨단 제조시설을 기반으로 국내 유통 담배의 전량을 양산공장에서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4월 기준 전체 생산량의 약 45%를 수출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담배는 말보로와 팔리아먼트·버지니아 라크 등 국내와 수출용 제품 등이다.

김병철 전무는 "담배 가격 인상되면서 국내 시장이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해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올해 수출해야 할 수주 물량이 이미 100억 개비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200억 개비 수출 돌파가 기대된다. 아시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수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G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 차익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전무는 "가격 인상에 따라 17~18% 담배 시장이 축소됐다"며 "오히려 판매량만 줄고 회사 입장에선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는 기본 적정재고가 있는데 적정재고를 부당 이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신에 이득이 생겼다면 법인 부과세 등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있다"며 "매년 사회 공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라기자 bora6180@metroseoul.co.kr

미쏘, 이태리 디자인 입는다

밀라노 스튜디오 와 콜라보레이션 상품 출시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의 여성 글로벌 SPA(제조유통일괄 브랜드) 미쏘가 미국 디즈니 콜레보, 영국 토케른 콜라보에 이어 이태리 스튜디오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이태리의 밀라노 스튜디오 디자인 상품들 중 2가지 컨셉으로 프리미엄 리미티드 라인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컨셉 '캐러비안 레트로'는 화려하고 컬러풀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두 번째 '일 누보 락' 컨셉은 락 감성의 거칠고 시크한 스타일들을 모던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어성스럽게 풀어 냈다.

글로벌 SPA 브랜드 미쏘의 강점인 내추럴한 스타일과 합리적인 가격에 이태리 특유의 색상과 디자인을 접목 시킴으로써 기존의 미쏘와는 전혀 다른 차별화 된 상품들을 선보이게 됐다. 누보 락 라운드형 크롭재킷은 9만9000원, 트로피컬 스커트는 5만9900원에 선보인다.

CJ제일제당 '수화 상담 서비스' 오픈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식품업계 최초로 수화(手話)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화 상담 서비스'는 수화를 사용하는 전문 상담원들이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문의 등을 영상전화를 통해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한국 농아인 협회에 소속된 청각·언어장애인 중 영상 전화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공 될 예정이다. 영상 전화기를 이용해 수화 상담 전용번호(070-7947-7671)에 전화를 걸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홈플러스, 네슬레와 펫푸드 1.5t 기부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탐커벨 입양센터에서 홈플러스 e파란재단 및 네슬레 퓨리나 및 유기동물 입양센터 관계자들이 모여 기부금을 전달했다.

홈플러스와 네슬레 퓨리나는 지난 3월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서 퓨리나 원·알포·프리스키 브랜드의 건사료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1개당 100g의 네슬레 퓨리나 펫푸드를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총 1512kg의 사료를 유기동물 입양센터 두 곳에 전달했다.

화장품 성장세에 용기 사업도 好好

삼광글라스·태성산업 지난해 12~13% 성장

/토니모리 제공

국내 화장품 시장이 커지면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가 특수를 보고 있다.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국인 등 해외 관광객 수요가 높아지자 용기 제조 업체의 매출과 생산량이 급증한 것이다.

19일 삼광글라스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용기 제조 매출은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5% 가량 높은 3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량 역시 2013년 1230만개에서 1400만개로 13.5% 증가했다. 올해는 1800만 개를 생산할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스킨푸드와 네이처리퍼블릭 등과 거래하고 있다.

이도형 삼광글라스 대표는 "백색 병은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중국인들의 국내 화장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백색 병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토니모리의 모기업이자 화장품 용기 제조 업체인 태성산업의 지난해 매출은 53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49%나 늘었다. 태성산업은 토니모리의 내수용뿐만 아니라 수출용도 생산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비화장품 계열사 퍼시픽글라스의 지난해 매출은 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다. 퍼시픽글라스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에뛰드·이니스프리 등 계열사 브랜드 제품의 대부분의 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코리아나·소망화장품·엔프라니 등의 국내 화장품 기업과 거래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소매 판매액은 16조 2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8.9% 성장했으며 12조원대였던 2010년 보다 4조원 가량 늘었다.

/이수정기자 ksoo0216@

"한국관광, 우리가 알려요"

재한 중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 '한유기' 발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강영희)는 17일(금) 원주 공사 사옥에서 한국거주 중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 '한유기(韓遊記)' 4기의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19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선발된 41명의 기자단 '한유기'는 공사 대강당에서 임명장 수여, 대표 선서 등의 발대식을 했으며 오후에는 한국 문화관광 스토리텔링과 SNS 마케팅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18일 첫 번째 취재 목적지인 강릉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현지 먹거리, 체험, 숙박 등을 기자단이 직접 경험하고 취재한 콘텐츠를 자신의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홍보했다.

2012년 출범한 '한유기'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직접 취재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SNS 등을 활용하여 중국인들에게 직접 전파함으로써 자유여행 목적지로서의 한국을 홍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4년째로 접어든 '한유기' 기자단은 그동안 국내 곳곳의 매력 있는 관광지를 둘러보고 체험한 내용을 자신의 SNS 계정에 등록하여 홍보하는 바이럴 방식을 택했다. 참신한 내용과 높은 신뢰도로 중국 젊은 층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응급처치 시연회 개최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2호선 사당역과 4호선 혜화역에서 응급처치 시연과 시민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19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응급처치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대합실에서 열렸다. 역 직원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연은 종로소방서와 동작소방서의 협조로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연출하여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응급처치 시연을 보고 시민이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체험 시간을 마련하여 행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지하철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신속한 응급조치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응급처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시스템 구축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양천경찰서 업무협약 체결

이화의료원이 운영하는 양천구치매지원센터(센터장 최경규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가 양천경찰서(서장 이용배)와 함께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19일 이화의료원에 따르면 양천구치매지원센터와 양천경찰서는 15일 양천경찰서 2층 열린누리터 소회의실에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기관이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활동 적극 참여 ▶치매 노인 사전등록 시스템 홍보 및 신청 접수 ▶1000만 서울 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동참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만 등록할 수 있었던 것을 치매지원센터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돼 치매 노인과 가족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치매 노인 실종예방 서비스 및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치매지원센터(02-2698-8680~1)로 문의하면 된다.

계족산 황톳길 - 대한민국 최초로 숲속맨발걷기라는 독특한 테마를 놓고 숲길 위에 14.5km의 황토를 깔아 맨발로 체험하는 대한민국 대표 에코 힐링 관광지다. 명품 100리 숲길과 함께 펼쳐지는 장동 삼림욕장에 임도를 따라서 황톳길이 펼쳐져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맨발 체험이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

문체부·관광공사 '2015 한국관광 100선' 발표

서울 5대 고궁 등 대표관광지에

한국인이라면 꼭 가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 관광지인 '2015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하였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높여 나가고자 2015년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 발표하였다.

서울은 5대 고궁을 비롯해 인사동 등 총 9곳이 대표관광지로 뽑혔고 경기는 인천을 포함해 9곳, 강원은 설악산 등 총 15곳, 충청은 계족산 황톳길(사진) 등 10곳, 전북은 내장산 등 8곳, 전남은 무등산 외 9곳, 대구는 근대골목 등 3곳, 경북은 영주 부석사 외 8곳, 경남(부산·울산 포함)은 창녕 우포늪 외 16곳이, 제주는 성산 일출봉 등 10곳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발표된 100곳은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명소와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추천된 대표 관광지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국내관광 마케팅 사업과 연계하여 많은 국민이 국내 여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붐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15 한국관광 100선'의 선정은 시도 지자체의 지역 대표관광지 추천과 여행관련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결과,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키워드검색에 관광지 증가율 등의 데이터를 통한 과학적인 계량평가와 여행 전문가들의 평가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시도된 빅데이터 분석은 최근 3년(12.1.1.~14.12.31.)간 축적된 총 7200만 건의 블로그, 트위터, 커뮤니티 내 관광지 관련 키워드를 다양한 연관어와 함께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국민들의 여행 선호도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기획팀 김용재 팀장은 "이번 2015 한국관광 100선 선정을 통해 국민 대상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이와 더불어 하반기 한국관광의 별 선정 사업과 연계하는 등 국내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하는 한국관광 100선' 홈페이지(www.mustgo100.or.kr)를 참고하면 된다.

/최치선기자 choisun@metroseoul.co.kr

동국제약 정맥순환 개선제 센시아, 새 CF

잇몸약 인사돌로 잘 알려진 동국제약(대표이사 이영욱)은 탤런트 김미숙과 윤정희가 모델로 출연하는 정맥순환 개선제 '센시아'의 2015년 TV CF를 선보였다.

이번 센시아 CF는 탤런트 선후배 관계인 김미숙과 윤정희가 출연해 정맥순환장애 경험을 대화하는 형식으로 풀었다. 광고에서 윤정희는 "다리가 아프고 퉁퉁 부을 때 치마 입기 곤란했다"며 젊은 여성들이 체험하는 정맥순환장애의 불편함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정맥순환 꼭 챙겨야 돼"라는 김미숙의 멘트를 통해 다리가 붓거나 저리는 것은 정맥순환장애 증상임을 인식하고, 치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동국제약 광고 담당자는 "여성, 특히 젊은 직장여성의 상당수가 정맥순환장애 증상으로 인해 치마 입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착안했다"며 "젊은 사람들도 정맥순환장애를 관리하고, 이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맥순환장애는 성인의 약 50%가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 증년질환(영국외과학회지 British Journal of Surgery)으로 발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고, 아프고, 무거운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서 일하는 직종의 젊은 남녀 직장인에게도 흔히 발견되며, 방치할 경우 하지정맥류, 다리궤양, 울혈성피부염, 전신순환장애 등 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르네상스 '철판요리'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일식당 이로도리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철판요리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철판요리 프로모션'은 이로도리 셰프가 최상의 재료로 선보이는 2가지 종류의 세트 메뉴다. 샐러드 - 모둠 채소 - 맑은 국 - 닭고기 · 안심 - 김치볶음밥 - 야채 볶음밥 · 제철과일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철판요리 프로모션'은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로 구성돼 있어 어린이날 가족 모두가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가격은 4만 ~ 5만5000원(10% 봉사료 및 10% 세금 포함)이다. 예약 및 문의는 02-2222-8657.

전기車 시대… 해외 '잰걸음'·국내 '걸음마'

美·日 등 시장 선점 위해 생산·인프라 구축 한창

국내는 충전소 미흡 등 상용화는 갈길 멀어

세계 각국 정부의 전기충전소 인프라 확충 계획이 발표되며 전기자동차 시대가 눈앞에 열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이미 본격적인 준비가 한창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주도를 제외하면 충전인프라 등이 미흡한 모습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1월 1만4512대에서 매월 증가해 12월 3만7511대를 기록했다.

저유가 추세에도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확대된 데는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 등 16개국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이니셔티브(EVI: Electronic Vehicle Initiative)를 리더십 포럼을 2010년 만들고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말 EVI 회원국에 보급된 전기차는 66만5000여대, 충전설비는 10만8000여대로 집계됐다.

EVI 회원국에 보급된 전기차는 전세계의 95%를 차지하는 규모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올해 260만대에서 5년 뒤인 2020년 770만대로 3배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은 2011년 전기차 지원정책 발표 이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 인프라 구축, 구매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판매량은 처음 연간 10만대를 넘어 12만대에 달했다.

올해 총 등록대수는 10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일본은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들이 앞장서고 있다.

도요타, 혼다, 미쓰비시, 닛산 4개사는 지난해 5월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출자 기업을 설립했다.

이같은 민관의 인프라 확산 노력에 따라 일본의 충전시스템 시장은 2012년 179억 엔에서 2020년 2626억 엔으로 약 15배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전기차 충전 플러그 규격을 통합하고 올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충전시설 155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독일은 급속 충전시스템을 현재 100여기에서 2020년 7000기까지 늘릴 방침이다.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준비가 늦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차 보급을 지난해 누적 6000대 수준에서 2017년 4만6000대, 2020년 2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국에 설치된 공공급속 충전시설도 현재 232기에서 2020년 1400기까지 늘릴 방침이다.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개발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인프라 구축에선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며 "전기차 개발사와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혁신 원동력 '인문학'서 찾는다

현대車, 임직원 대상 '인문학 콘서트' 진행

"혁신과 창의적인 변화를 하지 않는 조직과 개인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6일 오후 현대차그룹 서울 양재동 본사 2층 강당에서 김언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변화,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임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고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차그룹은 2013년부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역사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다.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속에 인간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담아야 한다"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지론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평소 업무에 치여 인문학을 접하기 어려운 임직원들도 인문학 콘서트가 열리는 기간만큼은 업무시간을 활용해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올해 인문학콘서트는 6월까지 총 8차례 열린다. 심리학, 종교, 패션, 신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초청 명단에 올랐다.

이달 23일에는 소설가 김영하씨가 나와 '스토리텔링의 마력, 위기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뇌공학과 교수,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마술사 이은결, 김홍기 패션큐레이터, 'PD수첩' 등을 연출한 김진인 MBC 교양제작국 PD, 김상근 연세대 신과대학장 등도 강사 명단에 포함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매회 강연에 임직원 400~500명이 참석한다"며 "다소 딱딱한 주제만 아니라 마술처럼 재미있고 흥미있는 내용도 많이 있어 호응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앞서 전 실시한 현대차그룹 직무능력검사(HMAT)에서도 역사에세이 문제를 냈다. 역사관과 인문학적 소양을 테스트해 직무 능력뿐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정소담기자 (sound@…)

BMW 미니, 스마트한 '미니 글래스'

운전중 문자메세지 가능 상하이 모터쇼서 첫 공개

BMW 미니(MINI)가 오는 21일 개막하는 2015 상하이 모터쇼에서 스마트한 안경을 최초 공개한다.

운전자가 안경을 쓰면 차량 앞 유리창에 내비게이션과 안전표시, 감춰진 사각지대까지 보게 해주는 '증강현실 안경(MINI Augmented Vision)'이다. 구글글래스처럼 운전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19일 BMW 관계자에 따르면 미니 증강현실 안경은 BMW 그룹의 디자인웍스(Designworks)가 디자인을, IT 기술은 퀄컴사가 맡은 콜라보레이션 제품이다.

고글모양의 이 안경은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단연 돋보이는 것은 내비게이션 기능이다. 운전자가 고개를 돌려도 데이터는 흔들림 없이 운전자의 시야를 따라 제공된다. 길안내는 물론 현재 위치 파악, 안전표시까지 보여준다.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연결하면 운전중에도 문자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자동차 오디오를 통해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다.

렌즈에 장착된 카메라는 차량 외부의 카메라와 연동해 A필러의 감춰진 부분을 투명하게 인식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는 A필러와 도어를 투명하게 만들어 바깥 상황을 훤히 볼 수 있다. 주차할 때는 사이드미러를 통해 거리까지 파악 가능하다.

/정소담기자 (sound@…)

한국 사로잡은 4人4色 슈퍼히어로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는 전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다. 세대·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마블 슈퍼히어로에 빠져드는 것은 바로 마블 캐릭터의 매력 때문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도 이제 스타를 넘어서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illegible] 개봉하는 마블 스튜디오 신작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의 주역들이 지난 16일 한국을 찾았다. 17일 기자회견과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한국을 향한 아낌없는 애정을 나타냈다. 특히 이들은 영화 속 캐릭터를 쏙 빼닮은 서비스로 팬을 열광하게 했다. 내한 기간 이들이 보여준 4인4색 매력을 살펴봤다.

'어벤져스2' 주역들 뜨거운 내한

영화 속 캐릭터 빼닮은 팬 서비스 선보여
'첫 내한' 마크 러팔로 뜨거운 반응 감격
'마블 신데렐라' 수현 가슴 뭉클 눈물까지

◆ 유머와 여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블 슈퍼히어로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는 뭐니 뭐니 해도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다. 아이언맨은 배트맨 브루스 웨인과 마찬가지로 갑부지만 고뇌에 빠진 무겁고 진지한 인물과는 거리가 멀다.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여유와 자신감이 곧 아이언맨이 사랑 받고 있는 이유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특유의 유머러스함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어벤져스2'로 세 번째 한국을 찾은 그는 이번 내한에서도 변함없는 유머와 여유로 웃음을 선사했다.

17일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쇼핑이 밀려서 바쁘다"는 너스레로 인사말을 전했다. 실제로 그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인사동에서 쇼핑을 즐기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같은 날 저녁에 열린 레드카펫에서는 인기에 걸맞게 등장만으로도 가장 뜨거운 함성을 이끌어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나는 매일 토니 스타크와 사랑에 빠진다"며 캐릭터에 대한 강한 애정을 나타냈다.

◆ 진심으로 전한 감사, 크리스 에반스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하는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는 아이언맨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있는 캐릭터다. 도덕과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는 진중하고 냉철한 성격으로 어벤져스 멤버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유머와 여유로 한국 팬들에게 화답했다면 크리스 에반스는 진심이 담긴 말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해 '어벤져스2' 촬영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그는 당시 공항에서 팬이 보내준 뜨거운 환대를 언급하며 "마치 비틀즈의 멤버가 된 것 같았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레드카펫에서도 크리스 에반스는 팬들에게 정성껏 사인을 해주며 젠틀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한국 팬을 향해 "여러분이 우리가 작품을 열심히 만드는 이유"라며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크나큰 축복"이라고 말했다.

◆ 알고 보면 수줍은 남자, 마크 러팔로

분노하면 헐크가 되는 브루스 배너는 마블 슈퍼히어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다. '어벤져스' 개봉 당시 헐크가 로키를 무자비하게 패대기치는 장면은 헐크의 트레이드마크다. 하지만 평소에는 조용하고 수줍은 모습이야말로 브루스 배너의 진짜 매력이다.

이번 내한의 진정한 주인공을 꼽자면 바로 브루스 배너 역의 마크 러팔로였다. 첫 한국 방문이었던 만큼 팬의 반응은 아이돌 가수 못지않았다. 기자회견에서 "레드카펫에서 광란의 밤을 보내겠다"고 자신있게 말한 그는 정작 레드카펫에서 예상을 넘어선 팬의 환대를 받자 감격에 찬 표정을 연신 지어보였다.

브루스 배너는 스크린에서 튀어나온 듯 수줍어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 그는 "팬에게 이토록 열정적인 환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 마블 신데렐라의 눈물, 수현

'어벤져스2'는 지난해 한국 촬영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다. 또한 한국 배우가 출연한다는 소식도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블 신데렐라' 수현이다.

수현은 '어벤져스2'에서 닥터 헬렌 조 역할을 맡았다. 토니 스타크와 친분이 있는 과학자다. 기자회견에 앞서 공개된 20분 분량의 푸티지 영상에서 수현은 한국어와 영어 대사를 동시에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줘 영화 속 활약에 기대감을 더했다.

레드카펫 행사에서는 순백색의 드레스로 우아하게 등장해 팬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는 "세트장에 처음 들어선 날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세트도 정말 멋있었다. 이 배우들 사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기뻤다"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팬의 뜨거운 환호에 울컥해진 나머지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다. 수현은 "이 배우들처럼 멋진 배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영화 '약장수'

영화 '차이나타운'

영화 '위험한 상견례2'

'어벤져스'에 맞서는 한국 영화들 '주목'

'약장수' '차이나타운' '상견례2'… 다양한 장르로 도전장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의 개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벌써부터 예매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극장가 반응도 뜨겁다.

그러나 화제성은 '어벤져스2'에 못 미치지만 다양한 장르로 관객과 만나려는 작품들이 있어 주목된다. 드라마, 느와르,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를 내세운 한국영화들이다.

영화 '약장수'(감독 조치언)는 '어벤져스2'와 같은 오는 23일 개봉한다. 어르신들을 모아 상품을 강매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을 배경으로 서민들의 애달픈 삶과 독거노인의 현실을 담은 드라마 장르의 작품이다. 배우 김인권, 박철민이 주연을 맡았다.

제작비 4억원이 들어간 '약장수'는 진정성을 담은 저예산 영화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영화는 각박한 현실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의 현실을 통해 애잔함을 전한다. 특유의 코믹함을 벗어던진 김인권, 박철민의 정극 연기도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오는 29일에는 '차이나타운'(감독 한준희)과 '위험한 상견례2'(감독 김진영)가 개봉한다. 각각 느와르와 코미디를 전면에 내세웠다.

'차이나타운'은 오직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차이나타운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여자의 생존법칙을 그린 영화다. 충무로 대표 여배우인 김혜수와 차세대 여배우 김고은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한국에서 쉽게 만나기 힘든 여배우 투톱 주연의 작품이다. '차이나타운' 측은 "'어벤져스2'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만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두 여배우의 활약이 신선함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위험한 상견례2'는 2011년 개봉한 '위험한 상견례'로 전국 259만 관객을 모았던 김진영 감독의 작품이다. 전라도와 경상도 가족의 갈등과 패러디로 웃음을 선사했던 전작과 달리 이번에는 경찰 가족과 도둑 가족의 이야기로 유쾌한 웃음을 담았다.

홍종현, 진세연 등 젊은 배우가 스크린에서 첫 주연을 맡았다. 두 배우는 드라마에서 보여준 이미지를 벗고 반전 매력을 펼쳤다. 신정근, 전수경, 김응수 등 중견 배우들도 가세해 웃음을 더했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씨엘, 북미 음악축제 초청

스크릴렉스 등 스타들과 한무대… 美 데뷔 박차

미국 데뷔를 앞둔 걸그룹 2NE1의 씨엘(CL, 사진)이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씨엘은 이번 여름 북미 지역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 MDBP(Mad Decent Block Party)에 참가한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18일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된 MDBP는 디플로 레이블이 매년 여름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글로벌 팝과 댄스뮤직을 콘셉트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7월 31일 미국 애틀랜타를 시작으로 북미 19개 도시에서 총 22회 열린다. 주최측에 따르면 역대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회당 최대 1만여 관객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씨엘은 스크릴렉스, 디플로, 티에인, 메이저 레이저 등과 함께 라인업에 올랐다.

씨엘은 오는 8월 9일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9월 11일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샌프란시스코), 9월 19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등 총 3회 공연에 출연한다.

한편 씨엘은 싸이의 미국 진출을 도운 스쿠터브라운의 SB PROJECTS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미국 데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 kraken@

방탄소년단 컴백 초읽기

그룹 방탄소년단이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탄소년단은 18일 새 앨범의 인트로곡인 'Intro: 화양연화'의 전체 음원이 담긴 트레일러를 공개했다.

이 곡은 방탄소년단의 슈가(SUGA)와 작곡가 슬로래빗(SlowRabbit)이 공동 작업한 곡으로, 아직은 세상이 낯선 소년들이 겪는 혼란과 고민을 담은 노래다. 슈가는 취미인 농구를 가사의 소재로 활용했으며 농구공 튀는 소리와 코트를 달리는 소리, 숨소리 등을 리듬으로 구성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29일 자정 세 번째 미니앨범 '화양연화 Pt.1'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지민 기자

당신의 다용도실은 어떤 가요?

musical review

■ 쓰루더도어

런던 쇼케이스 마치고 세계 첫 서울 상륙
상상력 자극 판타지… 지친 현대인 위로

우리 집 다용도실에 왕자님이 산다면?

뮤지컬 '쓰루 더 도어'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진다. 7년 전 단편 소설로 데뷔한 샬롯은 여전히 소설을 쓰고 있다. 그러나 샬롯의 주변 환경은 녹록지 않다. 편집장은 역시 소설을 고집하는 샬롯에게 "감(感)이 떨어졌다"며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맨스를 넣어 픽션 사극을 만들라고 독촉한다. 샬롯의 남편 레니는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 중독자가 된 인물이다. 샬롯이 쓰는 소설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의 감정을 잊고 살던 샬롯에게서 로맨스 소설은 어렵기만 하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하던 집 다용도실에서 샬롯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속엔 샬롯이 만든 가상의 세계 왕자님 카일이 있다.

'쓰루더도어'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낸다. 다용도실은 삶에 지친 어른들의 도피 공간이다. 카일은 현실에선 경계없이 여겨지던 샬롯의 소설에 관심을 보인다. 샬롯은 대화가 단절된 남편에게선 느낄 수 없었던 설렘을 다시 찾고 자신감을 얻는다. 다용도실은 레니에게도 위로가 된다. 문을 통과하자 잔인한 외눈박이 살인마로 변신해있다. '환상'의 의뢰에서 억압받던 그에게는 '내 세상'이 열린 셈이다. 전형적인 신데렐라 이야기는 여성 관객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샬롯을 둘러싼 현실 남편 레니와 가상의 왕자님 카일의 삼각 관계는 유쾌하고 때론 감동적으로 표현된다.

작가 주디 프리드와 작곡가 로렌스 마크 와이트가 2007년부터 준비한 '쓰루더도어'는 2009년 런던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뉴욕 리딩을 거쳐 2015년 한국 서울에서 세계 최초로 공연된 작품이다. 몇 년에 걸쳐 다듬은 만큼 전개와 작품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녹음된 반주 음악 소리가 커 배우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점, 한 장면에 배우들이 쏟아내는 대사의 양이 많은 점은 아쉽다.

동화책 한 권을 재미 있게 읽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쓰루 더 도어'는 6월 7일까지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에서 공연된다.

리의 혁명은 숲에서 작된다
DAS MUSICAL
ROBIN HOOD
로빈훗
2015.4.19- 5.25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김세영 '두 번의 기적' 롯데챔피언십 거머쥐다

18번홀 거짓말 같은 '칩샷' 박인비와 연장전… 연장 첫 홀에서 '이글'

김세영(22·미래에셋)이 박인비(27·KB금융그룹)와의 연장 접전 끝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18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김세영은 19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오아후 코올리나 골프클럽(파72·638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박인비·김인경(27·한화) 등과 짜릿한 승부를 펼쳤다.

이날 16번 홀까지 3명은 11언더파 공동 선두를 달렸다. 하지만 17번 홀(파3)에서 김인경이 한 타를 잃으며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다.

이어 김세영이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티샷을 물속으로 빠뜨려 우승컵은 박인비에게 돌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김세영은 세 번째 샷을 그린 근처로 보내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갔고, 박인비의 세번째 버디 퍼트가 홀 바로 앞에 멈춰섰다. 김세영이 그린 밖에서 시도하는 칩샷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승은 박인비의 몫이었다.

하지만 김세영은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적같은 칩샷으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갔다. 이어 18번 홀에서 이어진 연장 첫 번째 홀에서 약 154야드를 남기고 8번 아이언으로 시도한 두 번째 샷을 이글로 연결해 짜릿한 우승을 차지했다.

김세영은 이날 버디 3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 최종합계는 11언더파 277타다.

김세영은 경기 후 "공을 가까이 보내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공이 빨려 들어갔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2월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다시 우승 소식을 전한 김세영은 우승 상금 27만 달러(약 2억9000만원)를 받았다. 이번 시즌 벌써 2승으로, 시즌 상금(69만9735 달러) 부문에서도 선두로 올라섰다.

한편 이번 대회 1위부터 공동 4위까지 상위 5명이 모두 한국 선수들이었다. 김인경이 9언더파 279타로 단독 3위에 올랐고, 김효주(20·롯데)와 최운정(25·볼빅)은 7언더파 277타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시즌 개막 후 6개 대회를 독식하던 한국계 선수들은 최근 2개 대회에서 크리스티 커, 브리트니 린시컴(이상 미국)에게 우승을 내줬다가 다시 우승 행진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김세영 '우승 댄스' 19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오아후 코올리나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롯데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세영이 하와이 전통 댄스를 추며 우승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손흥민·박주호 풀타임 활약

한국선수 출전 분데스리가 팀 V 합창

'손세이셔널' 손흥민(23·레버쿠젠)이 풀타임 활약하며 팀 역대 최다인 7연승 타이 기록을 작성하는 데 힘을 보탰다.

손흥민은 18일(현지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하노버와의 2014~2015 분데스리가 29라운드 홈경기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90분 내내 그라운드를 누볐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레버쿠젠은 외메르 토프락, 율리안 브란트, 키리아코스 파파도풀로스 등의 연속골이 터지며 4-0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레버쿠젠은 지난 2월 23일 프라이부르크전부터 시작된 정규리그 연승 행진을 7경기째로 늘렸다. 또 승점 54점(골득실 +25)을 쌓아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골득실 +21)를 골득실로 제치고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직행 마지노선인 3위로 올라섰다.

구자철과 박주호가 동반 선발 출전한 마인츠는 오카자키 신지의 2골 활약을 앞세워 프라이부르크를 3-1로 꺾었다. 구자철은 전반만 소화한 뒤 교체됐고 박주호는 풀타임을 뛰었다.

수비수 홍정호가 풀타임 활약한 아우크스부르크는 VfB 슈투트가르트를 2-1로 물리쳤다. 지동원은 교체 선수 명단에 들었으나 출전하지 않았다. /김민준기자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18일(현지시간) 열린 독일 분데스리가 29라운드 하노버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동료선수 스테판 키슬링을 축하해주고 있다. /AP 연합뉴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19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강렬한 후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손연재 없는 리듬체조 상상할 수 없지

국대 선발전 부상 불참 "추천 선수로 차출"

대한체조협회가 '발목부상으로 리듬체조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불참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3)를 국가대표로 선발하고 국제대회 출전권을 주기로 했다.

체조협회는 19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필승주체육관에서 열린 2015 리듬체조 개인 국가대표 2차(최종) 선발전이 끝난 직후 손연재를 국가대표로 선발했다. 메달을 딸 확률이 있는 우수 선수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리듬체조 개인부문 국가대표로는 손연재, 천송이, 이다애, 이나경 등 4명이 선정됐다. 16세 이상이 참가할 수 있는 6월 제천 리듬체조 아시아선수권에는 손연재, 천송이(세종고3), 이다애(세종대3)가 출전하고, 대학생 이상이 참가할 수 있는 7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에는 손연재와 이다애가 대표로 나선다.

이달 초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경기 도중 발목을 다친 손연재는 18일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 1차전에서 72.100점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부상 탓에 2차전에 불참했다.

1~2차전 합계 점수는 천송이(125.250점), 이다애(122.150점), 이나경(118.650점) 순이었다.

이번 선발전은 제천 리듬체조 아시아선수권 출전선수 3명,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출전선수 2명을 정하는 한편 9월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리는 제34회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 1차 선발전을 겸해 열린 대회였다. /김민준기자

세월호 추모대회, 경찰 2중 차벽 저지 '논란'

2011년 헌재 위헌 결정에도 재등장
"국민의 행동 자유권 침해" 성도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 16일 이후 서울광장 등 광화문 주변 곳곳에서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가 열린 18일까지 대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20명을 포함한 시민 10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물대포와 차벽을 뚫고 유가족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시민 80명과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 20명을 포함해 모두 100명을 연행했다.

그런데 경찰의 수많은 전경버스가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 곳곳에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불통의 상징'이었던 차벽(車壁)을 설치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참가자들과 시민들은 경찰의 차벽을 사진으로 찍어 SNS(트위터·페이스북) 인터넷 등에 올리며 위헌 결정이 난 차벽을 또다시 설치해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경찰을 성토했다.

2011년 서울광장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들로 둘러싸 시민들의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 차벽 위헌의견은 재판장인 이강국 헌재소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이정미 재판관 등 7명이 냈다.

세월호 1주년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18일 오후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을 개별적으로 통행하거나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차벽)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전경버스로 차벽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며 막는 행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신훈민 변호사(36)는 "지난 11년 위헌 결정을 받은 경찰차벽 설치는 민주사회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면서 "더군다나 이번처럼 세월호 1주기 추모식 후 평화행진을 하는 유가족과 추모객들을 차벽으로 막아 한명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에서 서울광장과 청와대로 향하던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에 다시 설치한 경찰차벽으로 인해 2011년 6월 당시 헌재의 결정(서울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이 상기되고 있는 것이다.

/최치선기자 [email illegible]@metroseoul.co.kr

촛불로 만든 '세월호'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건선지로 친구를 밝히는 형태의 촛불을 든 시민 4160여명이 1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형상을 만들었다. 이 행사는 세계기네스협회에 '사람이 만든 가장 큰 촛불 이미지' 부문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成 리스트' 첫 소환자 홍준표 지사 유력

洪 "다 밝혀질 것" 쏟아지는 증언에도 의혹 부인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첫 소환 대상자로 홍준표(사진) 경남도지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19일 특별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성완종 리스트' 인사들 중 금품수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인물을 우선 수사할 방침이다. 성 전 회장의 발언 외에 정황상 구체적 증거가 거론된 인사는 이완구 총리와 홍 지사다. 그 중 돈을 건넨 제3자가 특정되고 구체적 정황이 크다는 점에서 홍 지사가 첫 소환 인사가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직전 인터뷰를 통해 "2011년 6월 당시 측근 윤승모(52)씨를 통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천을 원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대세론을 타던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넨 이유가 충분했다는 얘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은 돈을 건넨 당시 서울 여의도 M호텔 커피숍 별실에서 성 전 회장과 홍 지사가 만남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다. 경남기업 한모 부사장도 검찰 조사 당시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 계좌에서 1억원을 인출했고, 윤씨가 이를 받으러 경남기업을 찾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윤씨 또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곧바로 홍 지사(당시 의원) 의원실과 면담일정을 잡은 뒤 곧바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1억원이 윤씨를 통해 홍 지사 측에 전달됐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온 것이다. 홍 지사는 현재 모든 정황 증거들을 부인하고 있다.

전달자인 윤씨는 당시 이회창 총재 보좌관의 소개로 홍 지사 측 공보 특보를 지낸 뒤 2012년에 경남기업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양측 모두 관계가 얽혀있는 셈이다. 홍 지사는 이를 근거로 "윤씨는 성 전 회장의 측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윤씨의 '배달사고'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윤씨는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배달사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장소, 시기, 방법 등 추가 증언의 증명 자료를 내놓을 경우 홍 지사가 첫 사법처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윤씨가 홍 지사에게 1억을 전달했는지 밝히는 것은 수사팀의 남은 과제다. 경선 이후라도 사용처분명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돈거래 시점이 2011년이어서 공소시효(7년)도 남아 있다. 다만 후보자 보호 명분 아래 모금 주체를 밝히지 않는 관행 때문에 후보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홍 지사의 혐의 증명 여부가 윤씨의 손에 달린 셈이다.

/[illegible]기자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적발

몬테락 등 5개 품목
내달부터 20% 인하

비타 500으로 유명한 대웅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대웅제약의 5개 의약품 가격을 내달부터 20%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사진)와 몬테락 등 5개 품목을 판촉하기 위해 음식비 관람비와 숙박시설 이용비를 직원 복리후생비로 대납해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은 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고시로 대웅제약의 알레르기 비염 치료약인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의 상한금액을 1만692원에서 8554원으로 인하하고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치료약인 몬테락세립 4mg, 몬테락츄정 4mg, 몬테락츄정 5mg, 몬테락정 10mg 5개 품목도 각각 20%씩 하향 조정된다.

서울시, 올 장애인 공무원 262명 채용

19일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공무원을 262명 채용하고 이들의 근무를 돕기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공무원을 전체 직원의 10%까지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경력 개발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장애인 공무원이 없는 언론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경제정책과, 교육정책담당관 등 주요 부서에 장애인 공무원들을 배치하기로 했다.

'장애인 친화부서'로 지정된 장애인복지정책과, 마곡사업담당관, 시의회 사무처 의사담당관, 서울시립대 등에도 자신이 희망하면 배치한다.

시는 장애인공무원 직무 코디네이터를 도입해 장애인들의 직무관리를 돕고 고충을 상담해주도록 했다.

/박승범기자 [email illegible]